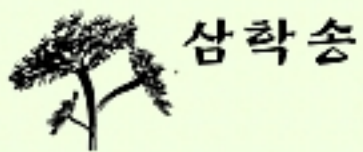


지면안내

- 02 수강신청 정정 30분의 혼란
- 03 총학생회 1학기 공약 평가
- 04 길거리에 선 상지대생 '학생들이 학생답게 살 수 있는 사회'
- 05 경술국치 100년 역사의 진실과 왜곡
- 07 취업 기획 인터뷰



삼학송

교감은 이상(理想)에 그쳐야만 하는가

낙산 아래 평화로워 보이는 작고 아담한 학교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 머릿수만큼 일어나는 게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이 한 번씩 나를 관통해 지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보이는 일이라도 수십 가지의 이유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 문제는 이 수십 가지의 상황들이 거의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군가는 수화기를 들고 일반적으로 소리치고 험한 욕도 내뱉는다. 당하는 사람은 한 두 번씩 응대하다 점점 화가 난다. 친절하면 대답은 점점 날카롭고 간결해진다. 어쩌면 순수하게 문의한 1백 번째 사람에게 그 날카롭고 간결한 대답이 돌아갈지 모른다. 이 사람은 억울해진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나. 기본 상하네.'

각자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 원하는 건 단순하다. 그런데 원하는 바를 원 초적으로 행하면 상황이 나빠진다. 서로 '기본 상하계' 하면 곤란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 문제를 한 꺼풀 벗겨 이성적으로 대상의 속성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성을 찾으면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상황은 의외로 매끈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일은 없다. 한성대 신문사의 편집국장이자 취재 부 기자로서 한 개의 사건에 대해 여러 입장을 만나며 그 이유를 '소통' 해야 한다는 걸 실감한다. 신문사는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뛰어난 중립성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는 '교감'을 꿈꾼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앞에 그 소망이 좌절되는 세상은 옳지 않다.

이상미 편집국장

우촌관 101호, 자유열람실에서 고시반으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대비책 미비 아쉬워

2010 우촌관열람실 이용현황

구분	일평균 이용자수	일평균 심야이용자수	1인당심야 평균이용시간 (23:00~06:30)	비고
101호 (55석)	평일	91	8명	3.2
	토.일.공휴일	57		
608호 (9석)	평일	16	1명	3.8
	토.일.공휴일	15		

1. 자리배석시스템 통계 기준
2. 방학중 기간은 608호 열람개시일인 2010. 7. 12부터 산출
3. 24시간 운영, 1인당 1회 이용시간 8시간(경신가능)

우촌관 자유열람실의 위치가 101호에서 608호로 변경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101호는 화내 시설 용도 변경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오후 6시 30시까지 개방 후 폐쇄되었다. 우촌관 101호는 고시반 전용 학습공간(이하 고시반)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방적인 결정과 미비한 대안책을 지적한다. 박창선(행정 3)학생은 "608호는 좁은데다 좌석이 9개에 불과하고 외진 곳에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 주변에 CCTV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5층까지만 운행된다. 공지에는 101호의 안전성이 언급됐는데 608호도 별다른 안전 대책이 없다. 보안키라도 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학생들의 입장을 나타내고 싶다. 학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을학기에 졸업한 신승하(부동산)씨는 "조사기간이 방종인지 학기 중인지 공지만 있으면 알 수 없

어 객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공고 직후 시행해 학생을 무시하는 느낌이 든다. 방중에 공지해 열람실 폐쇄에 대해 아예 모르는 학생도 많다. 개방하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1호가 고시반으로 변경된 주된 이유는 현재 고시반의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현재 고시반을 준비하는 34명의 학생들은 학과 성적, 영어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시반에 입반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CPA 공인회계사 반(20명)이 기존 고시반과 통합되어 고시반 인원이 54명으로 늘어났다. 중문 주차장 부근에 위치한 기존 고시반 건물은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는 게 불가능해 우촌관 열람실로 옮기게 된 것이다.

중문 주차장 부근의 고시반이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오순명(취업·창업지원팀)팀원은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우촌관 화장실을 이용한다. 요즘 문제되는 주박가 범죄문제에

2010 미래관 제1~3열람실 이용현황

구분	일평균 이용자수	일평균 이용자수		
		3층 (202석)	4층 (206석)	5층 (180석)
학기중 (2010/03/01 ~ 06/20)	평일	332	241	168
	토.일.공휴일	130	103	73
방학중 (2010/06/21 ~ 08/06)	평일	158	140	매실
	토.일.공휴일	54	58	매실

1. 자리배석시스템 통계 기준
2. 이용시간: 06:30~23:00, 1인당 1회 이용시간 4시간(경신가능)

도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열 건물에서 수년 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었고 야간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안전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적절한 공간을 찾던 중 우촌관 101호 열람실이 결정된 것이다.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 팀장은 "강의실 가동률이 높아 일반 강의실 외부를 활용하기도 무리였다. 궁여지책으로 찾아보니 가장 적합한 곳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우촌관 101호 열람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창업지원팀은 자체적으로 101호의 이용률을 학기 중 하루 2번 일정한 시간에 조사해 왔다. 그 결과 평상시 총 55석 가운데 주간 평균 15석 내외의 점유율을 보였고 야간(심야)시간대 이용률은 5명 이내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오순명 팀원은 "5개 좌석이 전부 예약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명만 남아있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리를 예약하지 않고 외부인이 이용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열람실을 608호로

이전된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오진형 팀장은 "고시반 학생도 같은 재학생으로서 학교 전체 열람실의 일부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 열람실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한 학기동안 상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취업·지원팀은 향후 지원 방향으로 ▲더 넓은 대채 공간 제공 노력 ▲ 미래관 책상을 칸막이가 높은 것으로 교체해 제시했다. 김성희(학술정보팀)팀원은 "우촌관 608호의 안전 문제는 개강 후 직접 방문해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시험기간 열람실 부족 문제도 한 학기 운영 후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한된 학교 공간에서 고시반 학생들의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었으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및 확실한 보완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009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지난 8월 2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생 334명, 대학원 석사 118명, 박사 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된 정주택 총장은 "명예로운 학위를 받는 주인공인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교내 새로운 소통의 장, 한성 지식창고

마일리지 및 포상제도로 의견 개선 유도

한성 지식창고 시스템(Hansung Knowledge Warehouse)이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한성 지식창고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모든 학생, 교수 및 교직원 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최민이(기획전략팀)팀원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한성학원 창립 65주년·한성대학교 개교 38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 '제 2의 개교'에 발맞춰 본교 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정책제안 및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려는 것"이라 설명하며 "학교의 변화하는 모습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느끼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성 지식창고는 학교 측에서 직접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정책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의견을 받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 낙산의 메아리와 성격이 다르다. 접수된 제안은 실용화 가능성·창의성·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돼 실제 정책 운영에 반영된다. 현재는 본교 재학생 및 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후 동문 및 학부모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제도 도입했다. 회원가입시 300마일을 지급하며 로그인시 10마일(1일 1회), 주민번호 앞자리 기준으로 본인 생일에 자동으로 300마일 적립, 아이디어당 200마일리지(월별 5회)를 지급한다. 따라서 회원가

입(300마일리지)을 하고 아이디어를 3번 제안(600마일리지)하며 로그인을 10회(100마일리지)만 하면 1천마일로 3만 원이 지급된다. 로그인만 100회(연 1회)해도 1천 마일이다. 최민이 팀원은 "100회 이상 로그인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창고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아이디어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상제는 마일리지와 별도로 매월(소정의 기념품)·분기별(50~100만원)·년간(300만원)에 따라 최다 또는 최고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사령	
임	
편집국장	이상미(매디 2)
문화부장	이예진(무용 3)
학술부 정기자	이정대(행정 1)
수습기자	공유화(한국어문 1) 장영경(한국어문 1)
인기면료	
편집국장	김명하(정통 4)
학술·사회부장	박형신(경영 3)
위원면적	
김동규	(행정 1)
김영훈	(행정 1)
윤인혁	(역사문화 1)

2010년도 2학기 신입임용교원 안내

정호섭

■ 역사문화학부
- 전임강사
- 고려대

양성병

■ 경영학부
- 전임강사
- 서울대
- KAIST

칼슨

■ 영어영문학부
- 전임강사
- Bowdoin College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알렌잔드로

■ 경제학과
- 전임강사
- Fernin Toro University
- Simon Bolivar University
-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박우

■ 교양교직학부 교양과정
- 전임강사
- 연변대학교
- 서울대학교

필립스

■ 언어교육원
- 전임강사
- Oxford Univ, U.K.

암스

■ 언어교육원
- 전임강사
- Ohio State Univ, Columbus

• 1차 정정기간, 프로그램 등의 오류로 혼란

여석 및 강의실 부족 문제도 지적돼

1차 수강신청 정정이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비 및 프로그램 오류로 30분간 취소 기능이 마비되어 일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았다. 기능이 재개되었으나 취소란 실행되지 않았고 신청은 가능했으므로 이미 대부분의 여석이 찬 상태였다.

특히 수강신청 기간에 먼저 학점을 채우고 정정기간에 여석이 남으면 취소 뒤 다시 신청하는 복수전공 이수자들의 피해가 컸다. 행정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최재봉(사정3)학생은 "졸업에 무리가 없도록 이번에도 일단 20학점을 채웠다. 복수전공 과목을 신청하려면 전에 신청한 과목을 먼저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면 곤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4학년 2학기의 한 무용학과 학생도 6학점밖에 신청하지 못했다. 그는 "졸업학점에 필요한 교양필

수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걱정이야. 만약 학교 측에서 수업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번 해에 졸업이 힘들어진다. 상황을 보고 우선순위에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확답이 아니라 불안하다. 오류 난 사람이 나 말고도 한둘이 아닐텐데 원하는 수업에 다 넣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문제다"며 걱정했다.

이번 문제는 수강신청 정비 및 프로그램 내부에 예상치 못한 과부하가 생겨 일어났다. 김기호(정보화팀)팀원은 "정정 기간 수강 신청은 전 학년이 한꺼번에 서버에 접속하므로 특별히 신경쓰고 있다. 이에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새로운 수강신청 과부하 방지 시스템 정비를 20일에 시범운영했는데 실제 서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장비는 동시 사용자의 요청을 본 서버에 나눠 전달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 서울대, 연

세대, 국민대 등 타 대학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다. 한 건 처리에 2-3초가 걸리던 기존 장비와 달리 0.5초에 처리할 수 있는 장비로 1초에 60-70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데 시범운영 중 순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김기호 팀원은 "30분동안 신청까지 막아놓으면 문제가 더 컸을 것"이라며 "원인을 찾고 해결하느라 공지를 올리는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수강신청 매크로 등 외부 프로그램 사용도 서버가 다운되는 요인 중 하나다. 김기호 팀원은 "과목코드와 반반을 하나씩 입력하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조작해 미리 3개를 한번에 입력해 처리하도록 바꾸는 학생들이 작년엔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1초에 2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정보화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1초에 3건씩 처리하는 것이다.

이들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팀은 아무리 빠르게 해도 0.5초씩 지연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했으나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

김기호 팀원은 "수강신청을 했다가 휴학, 미등록 제적, 자퇴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80명 정도 있다. 이에 160-180개 정도의 여석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영만(학사지원팀)팀장도 "강의실이 넉넉하면 40명 정도의 반반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교양전공 기초 강의는 60명이 꼭 지켜 유가 없다. 학교는 최대한 많은 복수전공 학생들을 원하는 수업에 배치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리 해당 수업의 교수 및 학사지원팀을 찾아 상담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국제여름학교, 영어권 교류학교 학생 초청해 교류불균형 해소를 위한 발판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3주간,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영어권 3개국 자매대학 (Northem Kentucky Uni, USA · kainan Uni, Taiwan · INTIcollege subang java, Malaysia) 학생 11명을 초청해 국제여름학교를 운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제여름학교는 한국어, 한국종교와 사상, 복식, 한국정치 등의 정규수업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비영어권 국가는 제외하고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김일환(대외협력팀)팀원은 "비영어권에서는 학생들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영어권 교류대학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적어 교류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규 강의에는 우리학교 교수 뿐만 아니라 해외대학에서 재직 중인 각 분야의 한국인 교수도 초빙해 3주 간 한

국어, 한국종교와 사상, 복식, 한국정치 등의 분야에 대해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문화 체험과 탐방프로그램은 외국 참가학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일환 팀원은 "창덕궁 견학, 인사동 투어, 태권도 체험, 한복경험, 남산타워, 안동 하회마을 견학 등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떠들썩한 분위기의 야구관람, 이천도자기체험, 비무장지대(DMZ)의 체험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네 명이 함께 참가해 같은 숙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재학생들은 일상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외국학생들에게는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효과를 얻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이해원(영어영문 3) 학생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서 외국인과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몇 주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영어가 친숙해졌다"며 "같이 지내는

중에 생일을 맞은 학생이 있어 한국어, 영어, 말레이시아어 등 각국의 언어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축하해 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국제 프로그램 행사인 만큼 외국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학생' 한국학생들은 영어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있는 학생'으로 선발됐다. 따라서 참가학생들은 영어를 쓰며 친해져 행사가 끝난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김일환 팀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국에 다녀갔던 말레이시아 학생의 입소문을 타 내년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학생들이 많아졌다"며 "내년 국제여름학교는 행사기간을 1주 연장해 외국학생 20명, 한국 학생 10명을 모집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연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대학본부, 조직 및 업무 개편됐다

8월 24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2010년도 하반기 학사협의회에서 행정조직 개편 주요사항이 발표되었다. 큰 골자는 홍보기능과 국제교류 통합, 입학처에 기획기능 강화, 창업지원 기능 추가지원이다.

국제교류팀과 홍보전략팀이 폐지되고 대외협력팀과 입학기획팀이 신설됐다. 일부 처와 팀도 명칭이 바뀌었다. 입학홍보처는 입학처로 바뀌고 입학기획팀과 입학관리팀을 두게 됐다. 또 기획협력팀은 기획전략팀으로 취업지원팀은 취업창업지원팀으로 바뀌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최민이(기획전략팀)팀원은 "홀어져 있는 기능을 모아 각 분야 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된 대외협력팀에서 국제교류 및 홍보를 담당하며 입학기획팀은 성적 분석, 순수 입학기능을 강화해 입학 기획에 집중할 예정이다. 취업·창업지원팀도 취업지원 기능 외에 창업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창업 관련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대학원 입학식을 축하합니다. 지난 8월 26일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총장과 내빈들이 대학원 입학식 기념 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이장태 기자 dealee@hansung.ac.kr

교수 승진 및 초빙 심사 기준 바뀐다

"타 대학에 비해 연구 업적이 낮아"

교수 승진심사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교수지원팀에서는 현재 연 12편의 논문 게재 현황을 그 이상으로 늘리고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된 학술지 이상의 상위 학술지 논문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수협의회 및 학과장과 논의 중에 있다.

전장배(교수지원팀)팀장은 "타 대학을 조사한 결과, 우리 대학의 교수 연구 업적이 각 학과에서 선정한 상위 대학이나 동급대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업적 평가 대상인 ▲봉사업적 ▲연구 업적 ▲교육 업적 항목 중 연구 업적의 비중을 상승시키는 것

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우권(경제학과) 교수협 의회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증가되어야 하지만 학부중심의 학교 특성상 조교제가 활성화 되지 않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단계적인 상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수 승진 심사 기준은 학과장과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조율해서 교수지원팀에 보내면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게 된다. 이 수정된 규정이 통과 되려면 기획협력처장을 중심으로 모인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를 거쳐

야 최종적인 개정이 승인된다. 확실한 업적평가 기준은 2학기 개강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수 초빙 심사기준도 '교원 신규 임용 시행 세칙'에 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고 기간이 한 달에서 15일로 바뀌었다. 타 대학 교수의 신임교수 초빙심사 참가에도 변화가 생긴다. 1차 심사부터 외부 교수가 참가했던 종전과는 달리 2차 심사부터 외부 교수가 참가하게 된다. 1차 서류 평가는 학력, 경력, 연구업적에 대한 각각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외부 교수가 참가하지 않아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변화이다.

이장태 기자 dealee@hansung.ac.kr

방학중, 낙뢰사고로 일부 건물 냉난방기 고장

방학기간인 지난 14일, 학교 일부 건물에 낙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곳은 창의관, 탐구관, 학군단 건물로 약 1천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는 최근 계속된 폭우와 낙뢰로 인해 우리 대학 뿐 아니라 경희대 등 주변 대학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재도(시설지원팀) 담당자는 "개강 후 수업이 있는 탐구관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처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8월 25일, 모든 강의실의 냉난방기 수리가 완료 되어 학생들이 수

업을 받는데 불편이 없게 것으로 예상된다.

냉난방기 수리에 대해 한재도 담당자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구입 보다는 수리 및 교체를 하였다"며 "앞으로 낙뢰사고에 대비를 하더라도 피해를 100% 방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낙뢰를 모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장태 기자 dealee@hansung.ac.kr

동정란

이정숙(한국어문학부)교수 이 교수는 8월 14일 카자흐 국립사범대학에서 열린 국제한인문화학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 논문 「중앙아시아 고대인 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 15일에는 고려기 공원에서 열린 고려인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호영(한국어문학부)교수 박 교수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사회학 회장으로 일본 동경의 니소가쿠사 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논문 발표를 했다. 또한 두 번째 시집 「그대 아직 사랑할 수 있으리」(시하)를 발간했다.

문귀선(영어영문학부)교수 문 교수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생성문법학회주최로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The 12th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에서 「Wh-in-situ Does Correlate with Null Arguments」의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김귀옥(교양교직학부)교수 김 교수는 연구년을 맞이하여 오는 9월부터 1년간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학부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신재홍(교육대학원)교수 신 교수는 8월 10일 도서출판 동문사에서 도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출간했다.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제 3회 한성대 영상제 (구. 한성대 동영상문화제)

일시 :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미래관 지하 D.L.C
 주최 :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주제 : 자유공모
 대상 : 한성대 재(후)학생

작품형식 :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UCC 등
 런닝타임 : 10분 내외
 출품포맷 : DVD 혹은 avi, mpeg, wmv 등의 파일
 출품장소 : 우촌관 509호 교양학부 사무실(02-760-4446)
 출품마감 :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오후5시까지
 *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집니다.
 재능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교양학부 우509/760-4446

(주) 한성대 동영상 문화제

‘소통’ 총학생회, 얼마나 소통했나

문화 행사 기획에 두각, 실질적인 복지문제 해결은 미흡해 하반기, 공약 이행 여부 지켜보아야



올해 세웠던 제26대 총학생회는 보결선거를 올해 3월에 치러진 만큼 지난 한 학기를 평가하고 남은 한 학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총학생회의 1학기 평가를 통해 2학기에 집중적으로 실현해야 할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1학기의 '소통' 총학생회 활동을 평가하는 데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대동제 등 문화 행사 분야이다. 총학생회는 대동제에서 '무알코올데이'를 기획하고 눈에 띄는 무대행사를 치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장호철(경영 4) 총학생회장은 "기존의 대동제가 주점 위주의 대동제, 볼 것 없는 대동제란 평가를 받아 그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대동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또 문화제휴법인, 올바른 대학문화 캠페인 활동 등도 진행했다. 대학로에서 열리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30~50%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총학생회도 "활인 행사를 통해 한성인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렸다고 평가하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인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율은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는 문화 활인을 안내해주는 역할일 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방증에는 의료지원해택으로 라섹·라시 수술 할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바른 대학문화 캠페인은 '열람실 자리 반납 캠페인', '새치기 금지 캠페인'을 기획하고 아침 및 저녁 등교 시간에 진행해 학생 323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일부 학생들이 열람실 자리 반납을 하지 않아 빈 자리가 있어도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공간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학기 초 낙산의 메아리

에서 문제가 되었던 새치기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학기에는 금연 선포식을 예정 중이며, 우수 동아리 선정은 동아리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우수 동아리 10개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형태가 아닌 MT에 소주 및 음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당초 계획과는 달랐다.

등록금 동결, 학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등록금 동결 및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금 신설 계획은 정책국 책임 하에 회계자료 및 현재 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분석 중이지만 "시기 상 상반기에 직접적인 활동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지원금 사용처 확대 및 지급기한 단축은 "아직 취업·창업지원팀과 구두로 논의 중"에 있으며, 전공서적 구입비용을 교육훈련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에 대해서는 "취업·창업지원팀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 사용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반응이라 적당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생증을 체크 및 교통카드도 이용 가능하게 할 계획도 협의 중인 단계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학생증을 체크카드도 교체함에 있어 분실 및 발급기간, 비용증가 등의 단점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각 단대별로 200명씩 총 800명의 표본설문 자료 토대로 학교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분실물 센터 설립 계획은 학생지원팀과 협의 중이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현재 학생지원팀 내에 분실물 센터를 운영중이다"며 "분실물 관리를 학생지원팀에서 일원화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홍보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다시 건의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문제는 아직 제자

리결음이다. 세미나실,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컴퓨터 실습실을 증설할 계획은 학교의 공간 문제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학교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등록금 문제만큼 어려운 예기다. 일부 강의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컴퓨터 강의실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운동장의 주차장화는 '절반만' 이루어졌다. 주간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으로 주차 및 진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정기권 사용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운동장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 교양강의 개설권 요구, 주·야간 교차 전과 허용 추진, 졸업 유예제도 등도 현재까지 불명확한 부분이다. 졸업 유예제도에 대해서 "4학년 학생 중 초과 학기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안다"며 "4학년 위주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학교 측에 계속 주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플라스 운영 구간 증설 및 운행시간 연장 추진도 비슷하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한성대입구역에서 학교로 올라오는 방향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저조해 보류 중이다. 이전에도 보편적 방향의 노선이 있었으나 실제 이용률이 적어 폐지된 바 있다. 총무인 사담에 대학로와 해와로터리 방향을 구두 상 논의 중"이라며 하반기 공약 이행 활동을 약속했다.

장호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연속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특히 등록금, 학사에 관련된 굵직한 문제는 전 총학생회와 연계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데 실상 그렇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때 내세웠던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부분이 임기 안에 얼마나 논의 '완료'로 바뀔지가 관건인 것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교환학생 생생 정보통

뉴질랜드 유니텍, 이론보다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습니다. 440호와 441호에서는 뉴질랜드의 Unitec, 442호와 443호에서는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 444호와 445호에서는 미국 뉴욕의 Montclair State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기가 차례로 실립니다.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유니텍(Unitec)은 'University'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본교에서 한국어문학을 전공으로, 무역학을 복수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텍에는 무역학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는 경영학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적으로 4과목의 수업을 듣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한 학기에 6~7과목의 수업을 듣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이지요. 전 처음 수강신청을 마치고 일주일 중 삼일만 수업이 있는 시간표를 보고 '남은 시간이 많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각 과목은 꽤 많은 과제와 테스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중간-기말고사로 학생들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테스트와 과제로 학생들의 최종 성적을 평가합니다. 과제의 수는 과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지난 학기 들었던 'Advertising and Promotion' 수업에는 한 학기에 프로젝트 식 과제가 6개나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과제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거나 교수가 제시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상황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업시간에 품질관리와



임선희 (한국어문 3)

관해 배웠다면, 현실 속 회사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의 상황에는 어떠한 품질관리 방법이 적합한지를 설명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은 교수의 강의뿐만 아니라 초청 연사의 강의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과목과 관련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니텍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은, 실제 제가 경영학과 관련된 직업을 얻게 된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유니텍 경영학과는 총 3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들은 대부분 마지막 학기에 자신의 전공(회계, 관리, 마케팅, 재정)과 관련된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저에게 큰 어려움 중 하나였지만, 개인과제를 해결하거나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교환학생인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팀 프로젝트 경우에는 팀원들과 토론 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들은 교수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학교 내에 있는 'Te Puna Ako'라는 러닝센터(Learning centre)의 직원에게 1:1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제출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은 자신이 낸 과제의 점수와 함께 교수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 정보 홍신소

우리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다고?

Q : 한성대에도 축구부가 있었다던데 사실인가요?

A : 네, 1991년도 추계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우리학교에 축구부가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기억을 되짚어 가보자, 우리학교 축구부는 1985년에 창단됐다. 학생들이 단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창단된 만큼 학생들이 한 학기에 5천원씩 모아 축구부를 지원했다.

학교에 체육대가 없어 체육대에 진화하지 못한 고등학생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선수를 영입했으며, 축구 동아리인 버팔로의 일반학생들도 선수로 참가했다.

28년 동안 우리학교에서 근무한 엄재용(학술정보팀)팀장은 "학교의 소극적 지원에 연습 환경도 열악하여 주변 중·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다 쫓겨난 적도 있다" 회상한다.

당시 학생들의 관심 밖이었던 축구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1991년 추계 대학축구대회 준결승에 오르며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고 결승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떠올랐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응원 덕분에이제는 창단 6년 만에 조선타와의 결승에서 4:1로 우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당시 감독으로 재직했던 정은식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고 경영학과 4학년이었던 노홍 선수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정은식 감독은 "학교의 무관심과 운동 공간 부족이 가장 힘들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축구부에 대한 관심을 이르고 싶다"고 우승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

축구부, 창단 6년만에 전국대회 제패

최우수 선수 노홍(경영4)군, 지도상 정은식감독



이런 날이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창단 6년만에 전국대회 제패를 이룬 우리학교 축구부는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우리학교 축구부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특히 이번 우승은 우리학교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승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학교 축구부의 발전을 기대한다.

지만 그로부터 7년 뒤인 1998년, 축구부 특기자 부장 임학 등의 이유로 13년의 짧은 역사는 마무리 됐다.

1년 뒤인 20여년 전에는 축구부 수소를 개조해 기숙사가 만들어져 그들의 흔적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동대문 운동장에 울려 퍼진 1천5백명 한성인들의 함성소리가 공명해진다.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한성인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무엇이란 취재해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학교와 관련된 것이면 주제와 범위는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press@hansung.ac.kr로 문의해주세요. 질문이 채택되거나 토 실리는 분께는 문화상품권5천원 권을 드립니다.

한성 아트 &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한성아트&디자인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응모자격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학부생이면 누구나

주제
자유프로젝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분야 학과 홈페이지 참조)

접수기간
2010년 9월 6일 (월) ~ 9월 24일 (금)

접수방법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홈페이지
<http://jobart.hansung.ac.kr>에 인터넷 접수 및 파일 업로드
(인당 10분 프리젠테이션 분량 한 작품만 출품 가능)

분야
회화, 무용, 애니·제품, 시각·영상, 인테리어, 의생활학부

시상내용

입상구분	작품 수	상금
대상	6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6점	상장 및 상금 20만원
우수상	6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특선	30점	상장 (각 학과 및 전공별 5명 이내)

수상자 발표 및 수상식
10월 중 (추후 개별공지)

거리에 선 상지대생, '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합니다'

“인권담론의 형성 위해 찾잔 밖과 소통하라”

상지대를 필두로 덕성여대, 대구대 등 과거에 사학비리를 저질러 물러났던 재단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들은 거리에 나와 '비리사학재단 복귀 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5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비리사학재단 복귀 반대와 상지대 지키기 시즌-2 시민·학생 문화제'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에 성토하며,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권해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교육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는 대학가에 개인 이득을 챙기려는 비리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상지대에서는 전 이사장이었던 김문기가 아들을 내세워 상지대로 돌아오려 하고 있으며 대구대, 덕성여대 등에서도 비리재단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대학가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상지대의 경우 과거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가 1993년에 교수채용, 부정편입학 등의 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어 왔다. 그 후 임시이사회에서 뽑은 정이사들이 상지대를 운영해오다가 옛 재단(김문기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2007년 대법원은 소송에서 임시사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정이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분위는 4월 29일 상지대 정이사 9명 중 5명을 옛 재단측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들은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상지대 사태'로 발발하게 됐다.



▲ 지난 8월 25일 상지대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종로 보신각에 모여 교육 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병서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사분위에서 내린 결정은 실질적으로 옛 재단, 즉 김문기가 다시 상지대로 들어오도록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옛 재단측이 추천한 인사 5명은 이사회 정원 중 과반수를 차지해 결국 김문기를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반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사분위에서 낸 결정에 옛 재단측에서는 추천 인사 5명의 인원에 김문기씨와 김문기씨 아들 그리고 예전 김문기씨가 이사장이었던 시절의 이사였던 인물들로 구성된 인

원을 제안했다. 물론 이런 옛 재단측이 추천한 인사에 학생들은 극히 반발했고, 결국 사분위에서는 김문기씨를 제외한 4명과 김문기를 대신할 1명의 자리를 재 추천하라고 옛 재단측에 통보했다. 때문에 상지대에서는 이번 비리사학재단을 복귀를 막기 위해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작년 9월 9일부터 교내에서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병서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상지대에서는 지난 5월 학생과 교수의 삭발식을 갖고 수

입과 기말고사 시험을 통해 대항하고 있다"며 "방학 중에는 서울로 올라와 교과부 후문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상지대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비리사학재단이 복귀하려는 곳은 상지대만이 아니다. 이미 조선대와 영남대, 세종대에서는 사실상 비리재단의 복귀가 이루어졌고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대학에서도 옛 재단의 복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김수림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은 "비리재단이 들어올까봐 몸살 난 대학에 사분위는 결국 비리재단이란 악을 처방했다"며 "이 나라 대학사학이 바로 설 수 있게 비리재단 복귀를 막도록 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학부



선거철이면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주류(主流)인가, 비주류인가'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 뜻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최근 "불편해도 괜찮아(칭비라)는 인권을 주제로 한 책을 펴낸 김두식 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을 "남 명백히 주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류의 줄을 타고 있는 이 법대 교수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떡칠'까. 인권연대가 진행한 제80회 수요대화모임(27일, 금요일)에 진행에서 김두식 교수는 '주류와 인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좌우 상관 없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인권임을 강조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두식 교수가 성찰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자체는 주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강연을 통해 비춰진 그의 모습은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인권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인간 김두식이었다.

사실, 이날은 강연을 듣기 위해 강연장은 찾은 사람들보다 우리 사회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과제가 많았다. 그는 "주류와 보수가 할 수 있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문제의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가 인권에 눈을 뜬다면 진보보다 획기적인 일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브라운 판결'이나 프랑스의 앙시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 복무 인정 사례 등이 그러하다"며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찾잔 밖과 소통하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는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좌우가 함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없어진 상황이지만 사실 좌우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 무의미하다. 게다가 '찾잔 속 우리끼리'의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강연 말미에 "최근 20대의 선거 득표를 위해 선출 등을 약속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사람들 사이에 행동이나 말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민주주의는 죽게 된다"며 현재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된 상황적 답답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학부

통계로 본 한국사회

“여행은 한국인의 영원한 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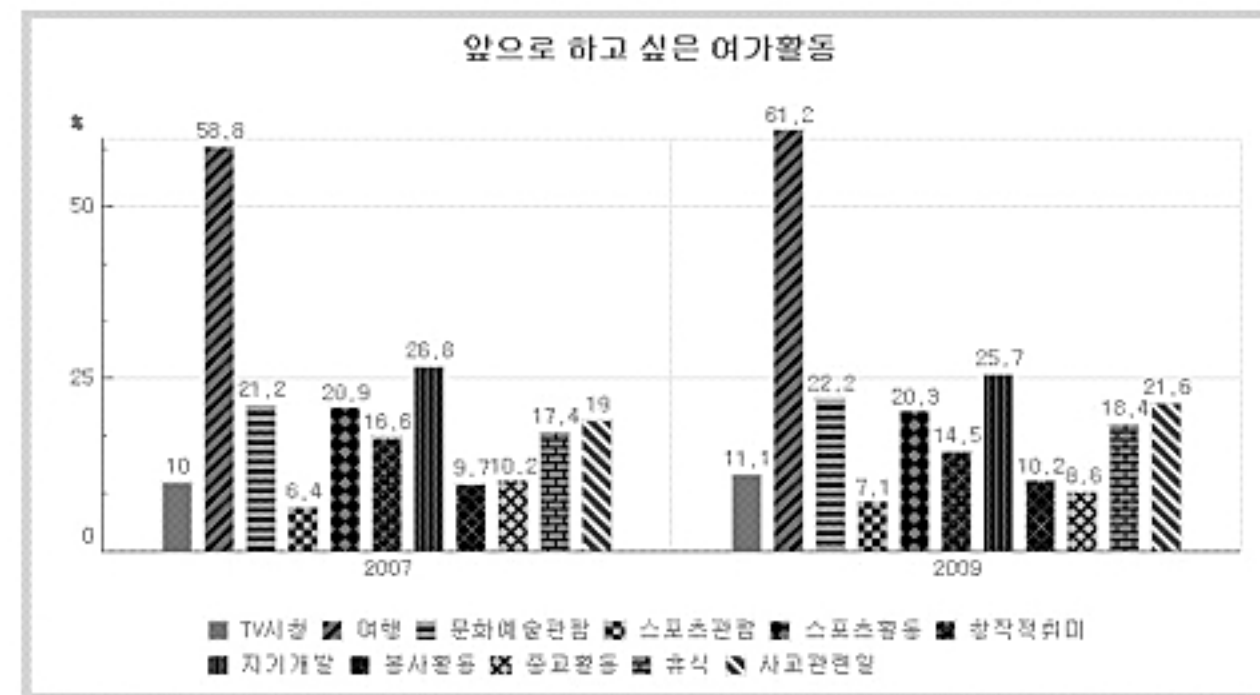
단거리여행, 개별여행 선호하는 경향 늘어나

한국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여행'을 생각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여가활동이 늘어나며 여행이 1위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투어 조일상 씨는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잠재된 여행수요가 폭발해 전년 대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9월 추석을 맞아 예약이 차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로망이기도 한 배낭여행은 요즘 단체 패키지 상품보다 혼자서 떠나는 나홀로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투어는 "온라인을 이용해 항공과 호텔만 예약하고 코스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개별여행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의 욕구에 맞춘 자유여행, 이색적인 여행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

했다. 때문에 여행업계는 지난 휴가철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개별여행이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여행작가 유연태 씨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길을 개척해나간다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홀로 발견한다는 매력에 이끌리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하나투어는 대학생의 여행수요에 대해 "장거리로 여행을 많이 갔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방학을 이용한 단거리 배낭여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행코너 베스트셀러에 자리잡은 반이상의 국내여행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걸기여행'이 상승세에 있다.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지역이 크게 인기를 유지하는 것도 한 몫한다. 또한 코레일에서는 학생들의 국내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방학마다 '내일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



출처: 통계청 나라 e지표

들이 학업과 취업의 무거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제도약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5만원의 초저가특별상품으로 기획돼 인기가. 여행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점에 여행작가 유연태 씨는

"미지의 세상을 향한 인간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며 자연히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연진 기자 odory11@nansung.ac.kr

낙산반평

장미정(애니제품 4)



2010년도 2학기 학생 예비군 편입(전입)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0년 8월 2일(월) ~ 9월 10일(금) 까지
2. 장 소 : 한성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 (우촌관 2층 208호 / 예비군대대)
3. 대 상 자
 - 가. '10년도 2학기 신·편입학 또는 복학한 대학(원)교 학생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
 - ※ 단 복학생은 복학 등록 후 예비군 편입 전입신고를 해야 함
 - 나. 대학(원)교 재학생 중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예비군 편성 대상자
 - 다. 기타 교직원으로서 예비군대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비군편성 대상자

4. 신고 방법 및 참고사항
 - 가. 예비군편성 전입신고 대상자는 학교 직장 예비군대대에 방문하여 준비된 양식에 기재 후 담당자에게 제출
 - 나. 예비군편성 전입신고를 지연 또는 미실시 한 경우 '10년도 예비군 훈련시간 증가 등 개인의 불이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다. 한성대학교 직장 예비군대대 연락처
 - 전화 : 02) 760-4176, 팩스 : 02) 760-8028, 담당자 : 010-5075-6553

경술국치 100년, 역사의 진실과 왜곡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과 요시다 쇼인의 후예들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월에는 간나토 일본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니지만 잊지도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중 일부인 경술국치를 여러 시각에서 알아보려 한다.

① 한일합병의 부당성 ② 불법 반출된 고문헌과 반원문화재 ③ 일제강점기의 피해 보상

한일합병조약(韓日併合條約; 日韓合邦條約),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 한일병탄조약(韓日併吞條約), 한일합방늑약(韓日合邦勒約) 등으로 칭하는 이 조약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1910년(경술년) 8월 22일 맺은 8개 조로 된 불법적인 조약으로 제1조에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우리 민족의 저항을 두려워하여 1주일동안 발표를 유보하였다가 8월 29일에 조약의 공포가 이루어졌다. 이 날부터 대한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純宗)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공개된 한일합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의 '일본측 한·일합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 29일 일왕(현황)

이 한일합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새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라는 순종의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아씨가 날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소장이 최근 입수하여 제공한 일본측 한일합방과 관련된 일본측 공문조서에서도 일본측 공문조서에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 무쓰히토)이 서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전에도 이 조약은 꾸준히 학자들에 의하여 불법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은 한일 병합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 조항 제8조에 '양국 황제의 결제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순종의 국새와 서명이 찍히지 않은 사료.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합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져있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합방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한·일 병합의 뿌리는 19세기 중반 일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메이지 유신의 발원지는 아마구치현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정권의 최고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이곳 출신이며 일본의 군사제도를 다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고향도 이 곳이다. 그리고 가쓰라 타로와, 테라우치 마사다케로 이어지는 근대 초기 육군의 실세가 모두 아마구치현 출신이다. 이토, 야마가타, 가쓰라, 테라우치는 차례로 총리를 지냈다. 2006년 아베신조(아베신타로의 아

들)까지 이 작은 아마구치 출신의 일본총리 출신이 8명이나 된 셈이다. 이들 아마구치현 사람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흔히 '아마구치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 다른 지역 출신의 일본인들이 아마구치인을 질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사의 배경에서다.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된 정환론(征韓論)의 정신적 지주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으로 그 역시 일본의 옛 조수변(현 아마구치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교육 철학은 독특했는데 그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무라이들의 교육기관인 병문관의 교수로 있으면서도 사무라이의 자녀들만이 아닌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제자로 맞이 하였다. 사무라이(武士), 주전(中間), 아시가루(足輕) 등으로 나누는 신분구조하에서 주권의 시종을 드는 최하층의 이토 히로부미는 요시다 쇼인의 배려로 공부할 수 있었다.

경병대(역사문화학부) 명예교수

동양화 스토리

살아 숨쉬는 조국 강산의 참된 모습을 그린 겸재 정선의 화혼(畫魂)



▲ 청하성음도/ 종이에 먹/ 32.7x25.9cm/ 겸재정선기념관 소장/ 그림제작 겸재정선기념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 1번 출구로 나오면 하마비(下馬碑)의 비석이 첫눈에 들어온다. 즉 '이곳에 이르러 대소인원은 말에서 내리라(至此大小人下馬碑)'고 쓰여 있다. 조선 시대에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세기가 궁가, 종묘, 문묘 따위의 앞에 세웠던 비석이다. 하마비를 뒤로하고 5분 정도 걸으면 한국미술의 거장 정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정선기념관이 눈에 들어온다. 2009년 4월 강서구 가양동에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겸재가 작가로서 절정에 달한 시기인 65~70세까지(1740~1745) 만 5년간 양천 현(지금의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현령을 지냈기 때문이다.

겸재(謙齋) 정선(鄭勳)은 만 5년간 양천 현령 재직 시절 이방언과 시화(詩畵)를 교관하고 '경교명승첩', '양천팔경첩'과 같은 기념비적인 역작을 남겼다. 그의 진경산수화풍은 양천에서 무르익어 절정에 이르렀다. 양천현령으로 있으면서 서울과 한강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특히 한강변의 옛 강서 모습인 '이수정', '소요정', '개화사', '양천현아', '종해청조', '공평출입', '설빙기려', '소악후월', '소악루' 등의 작품이 전한다. 정선은 화감을 남기고도 왕성한 창작을 이어갔다. 특히 양천 현령 재임기(60~70세)한강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그리면서, 종래의 남성적 산악미와 더불어 부드럽고 서정적인 아름다운 표현까지 겸비하게 된다. 청하는 겸재가 일제의 명작을 남긴 곳 중의 하나로써 정경산수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림양식이 완성된 정경산수의 고향으로서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즉, 그가 청하에서 '금강전도'와 '내연산 삼승추'와 같은 우리나라 회화사의 이정표가 되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긴 곳이기 때문이다. 진경산수란 조선 시대에 중국풍의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의 멋과 아름다움을 직접 사색하여 현실을 통한 주자학적 자연관과 풍류를 표현한 한국적 산수화풍을 일컫는다. 17세기 말 산수기행문학을 성행시킨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흠 형제와 교류하며 받은 진경시(眞景詩)의 영향은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태동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진경산수화는 18세기 초, 중반 영조연간에 가장 널리 유행하였으며, 당시 진경산수의 출현은 미술계의 새로운 변화 그 자체이다. 물론 진경산수의 사회적 배경이 조선 후기 숙종, 영조 연간에 일어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의 사조와 맥을 같이 한다하더라도, 청하현감 시절은 겸재의 인생과 예술에서 아주 큰 행운과 소중한 기회였음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청하성음도(淸河城邑圖)'는 정선이 58세에서 60세까지 지금의 포항시에 속하는 청하에서 현감을 지내면서 그곳 성읍의 경관을 그린 것이다. '청하성음도'는 겸재의 자신 있는 필치, 정확한 묘사력, 원숙한 필력으로 청하의 수려한 자태를 보여준다. 또 관아를 화면의 중심에 두고 원경에는 호학산(呼鶴山)을 근경에는 갯벌과 습밭을 그려 넣어 성읍의 경관이 한 눈에 보이도록 부감법(俯瞰法)의 시점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을 구사하였다. 즉, '청하성음도'는 겸재가 즐겨 구사한 부감법의 구도와 함께 겸재 정선의 화혼(畫魂)이 높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하겠다. 화면상단 화제 옆에는 자손대대로 소중하게 전해지기를 바랐던 듯 '천금을 주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千金勿傳)'는 백문방인이 찍혀있다.

이근우 / 종일대 강사

학술서평

『죽어야 사는 나라, 조선과 일본』/이광훈/따뜻한 손



『죽어야 사는 나라, 조선과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에 입힌 피해를 말하는 책들과 달리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 병탄의 뿌리를 캐다』라는 부제가 말하듯 경술국치의 피해보다는 이유가 되는

원점을 파고든다. 이 책에서는 조슈 번(현재의 아마구치현)에 해당의 출신 인물들을 다루는데 이 지역 출신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소네 아라스케, 테라우치 마사타케 등은 메이지 유신의 중심인물이자 조선의 식민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위 인물들은 일본 근대화의 핵심 인물인 요시다 쇼인의 후인들로 한일합병을 지휘하고 무력에 의한 합병을 강행했다. 이 책은 작가 이광훈이 메이지 유신과 위 인물들의 출신지라 할 수 있는 아마구치, 하기, 시모노세키, 호후 등 조슈 세력의 본거지를 답사하는 등 저자의 많은 노력이 담겨있어, 경술국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이순우/하늘재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을 설명해 주는 전형적인 경술국치에 대한 책으로서 역사의 현장, 전통, 땅 등의 이름,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일제의 잔재들을 하나씩 꼬집어 가는 형식의 글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원구단과 환구단의 차이', '호미꽃의 이름은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국회의원의 봉급을 왜 세비라 부르는가?' 등 잘 모르던 것 같던 내용이 쉬운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명, 전통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새롭게 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를 '알아간다는 것'은 역사 속에 담겨진 지혜를 '답습'해 나가는 일이 보통이지만 잘못된 기록과 해석의 착오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은 '일그리던 근대 역사의 흔적을 뒤지다' 시리즈의 3번째에 해당되는 책으로 일제강점기에 관심이 있다면 나뉠 책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한성인에서 세계인으로!! 외국인 교수와 함께 하는 소그룹 영어 공부!

한성대학교 잉글리쉬 라운지에서 한성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전임 외국인 교수들과 함께 무료로 영어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자는 최소 4명, 최대 6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첨부한 지원서를 한성대학교 교내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

- 링크 :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 커뮤니티한성 → 교내홈페이지 → 홈페이지명 '잉글리쉬' 검색도 가능)
OR 잉글리쉬라운지로 방문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잉글리쉬 라운지 홈페이지 GROUP SPEAK 메뉴에 "2010년 GROUP SPEAK 모집안내" 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지원서 작성 시 12주(중간고사 주간 제외)에 해당하는 스터디 플랜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완료 후 GROUP SPEAK 메뉴에 지원서를 첨부하여 글쓰기를 통해 제출하셔도 되며, 잉글리쉬 라운지 자료직접 제출 하셔도 무방합니다.
 - 복수 지원은 불가하며 그룹 선정은 인원 수, 모임 시간, 스터디 플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양영어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스터디 시간은 고정입니다. 예) 월/수 10시~11시 30분 O
→ 잘못된 신청 예) 월 10시~ 11시 30분 목 14시~15시 30분 x
 - 꾸준히 출석하시고 공부하실 분들 환영입니다. 신청해놓고 안오시면 다른 학생들이 기회를 잃게 됩니다!

-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소속 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4명 이상 최대 6명의 영어공부동아리
- **기간** : 2010년 9월 6일 ~ 2010년 12월 3일 (중간고사 제외, 기말고사 전까지 12주간)
- **운영방식** : 주 1회 2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희망시간 대 (4시~6시까지는 잉글리쉬라운지 "Open Activity" 회화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간대 외에 신청하 시면 좀 더 기회가 있습니다.)
- **장소** : 잉글리쉬 라운지 (미래관 B1)
- **지원서 접수기간** : 2010년 8월 23일 ~ 2010년 9월 2일
- **선정 그룹 발표** : 2010년 9월 3일(학사공지 및 개별연락)
- **문의** : 잉글리쉬 라운지(미래관 B1/ 02-760-5561)
- **주관** : 교양영어교육과장위원회

잉글리쉬라운지(English Lounge)



사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변화

해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으레 그랬듯이 방학 때 해야 할 계획들을 이것 저것 잡아놓았지만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동안 밀렸던 학업과 연구도 치중하며 취미 생활도 치중하는 등의 나의 삶에 대한 전반적 변화에 대한 바람은 곧 잘 다음을 기약하게 된다. 자신의 틀을 깨고 스스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스스로는 변화하기 힘들지만 주변 여건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개혁이나 혁신, 융합, 혹은 통섭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 주변 전반에 핵심 단어로 등장한지 오래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려 왔다. 대학 역시 그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내왔다. 지난 3년(2007~2009) 사이에 교수 1인당 연구업적은 단과대 별로 약 2~2.5배 증가하였으며, 강의평가의 학과별 평균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교수들의 해외 연구비 수주액도 2007년도 39억원에서 2009년도는 약 78억으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실적들은 양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우리 대학의 위치는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아마도 타 대학에서도 변화의 물결을 타고 교내 모든 업적에 대한 평가와 위업을 위한 학생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면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사회적 지명도가 낮다는 것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이 있으며 또한 취업준비의 많은 어려움은 자신의 준비 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급변하는 우리 대학의 한 학과 졸업생 중 6명이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쾌거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대한 열망과 이 변화를 유지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 번 방학 중에도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한 혹은 앞으로 수강할 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다. 교수들에게는 더 많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연구 업적이 요구되어진다. 교수들은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또한 더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고 또한 학생들은 수강하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학업에 더 많은 집중적 시간 할애가 요구되어질 것이다.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및 학습, 그리고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시스템 역시 필요와 요구에 의해 더욱 발전하리라 본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변화의 물결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도 놀랄만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대학은 각 주체들이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이다. 각 주체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담당해야 할 일들에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대학과 그 구성 주체인 우리 모두의 달라진 위상을 볼 날이 있으리라.

의화정



김상현 교수 (기계시스템공학과)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단원들의 마지막 합창이 끝나갈 무렵, 나는 객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자꾸만 올라와서 그냥 무대로 올라갔다. 막이 내린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단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등을 토닥거리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단원들을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한성대학교 봉사단으로, 아니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네팔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멋진 한국문화를 알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따분 노력을 잘 알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단원들의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솔과 감동을 느꼈다. 참았어야 했다. 아니 잘 참았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하며 달려들어 안기는 아들, 딸들과의 포옹에 그만 한순간 무너져 버렸다.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

이번 한성대학교 97기 해외봉사단은 네팔과 카자흐스탄 두 지역으로 봉사를 떠나며 나는 네팔지역 해외봉사단장을 맡았다. 해외봉사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교육봉사가 대부분이지만 봉사 마지막 날 "한국의 날"이라는 문화공연 행사가 있다. 우

Today's moments is tomorrow's memories

리가 방문한 학교는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근처 다른 학교 강당을 빌렸다. 원래 하루 공연이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틀 공연으로 바뀌었다.

단원들은 첫날은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좋아했다. 첫날 공연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학교 강당이 우리가 연습했던 장소보다 너무 컸고 움직이는 통선이 달라지니 실수가 많이 나왔다. 최강 사물놀이도 박자를 놓치고 부채춤은 자꾸 무대 한쪽으론 모였다. 급기야 태권도에서는 실수뿐 아니라 격파시범 때 발을 다치는 사고까지 나왔다.

공연 후 단원들의 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무리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단원들을 다독겨려 주어도 침울한 분위기만 맴돌았다. 그렇게 공연 첫날의 밤은 깊어갔다. 아니 나한테만 그랬었다. 단원들은 그날 거의 밤을 새면서 다음날 진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의 날" 공연을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 총장, 현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들로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도 역시 사물놀이의 북소리와 함

께 우리의 공연은 시작되었다. '어제 저 부분에서 박자가 틀렸지, 오늘은 다행히 부채춤이 무대 중심에 모여 있네, 태권도도 오늘은 순서가 다 맞네.' 공연이 진행될수록 내 심장박동수도 증가되었고 문체의 태권도 격파시범이 무사히 마쳐지자 나도 모르게 환호를 질렀다.

얼마나 주먹을 쥐고 있었던지 손바닥이 따피 흥건했다. 마지막 단원들의 합창이 그렇게 감미롭게 들릴 수가 없었으며 모두의 모습이 가슴 벅치게 아름다웠다.

Today's moments is tomorrow's memories! 네팔 현지에서 단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감동이 다시 살아난다.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단원들과 함께 해서 고맙고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 그 속에 피어난 가족애, 이 소중한 감동과 추억들을 다른 한성대 학생들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 봉사! 아낌없이 남에게 주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교직원 인터뷰

학술정보관에 애정을 쏟아 붓는 도서관인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 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학술정보관 6층 멀티미디어실에 근무하는 엄정훈(학술정보팀) 팀원을 만났다.

2006년에 우리학교에 입사한 엄정훈(학술정보팀) 팀원은 올해 6년차 전산사서사.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전산 관련 업무를 하다가 전산사서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학교 학술정보관에 지원했다. 6층에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실의 비도서자료들을 관리하고,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업무이다. 물론 DVD 자료들을 구매하고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용자들의 민원을 관리하고, 학생들과 과도 직접적인 접촉이 많다 보니 소소한 에피소드도 많다고 한다. "학생들이 어떤 어학자료를 공부하나 궁금해서 쳐다보면 가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종의 직업병인 것 같다"는 말에서 직업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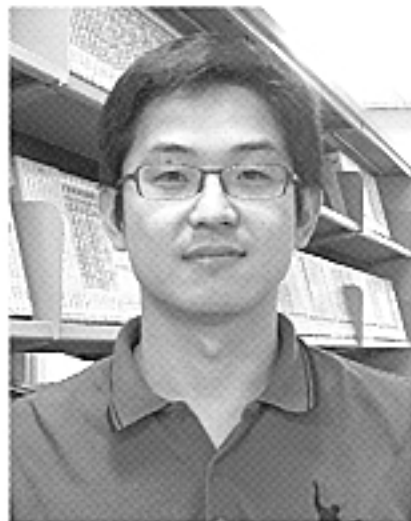
그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할 때, 반응이 좋으면 뿌듯하다. 학생들은 만족스러울 때 보다는, 불만족스러울 때 더 많은 표현을 하는데, 좋은 점도 이야기 해준다면 일을 하는데 더욱 힘이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는 "관리하는 입장이라 학생들이 자료를 쉽게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DVD가 손상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소중한 재산

이 낭비되고, 자료가 손실되는 것이다"라며 "고려타분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같이 쓰는 재산인만큼 뒷사람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학생입장에서 본다면 내 것은 아니지만, 같이 쓰는 공공재이니 만큼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소중한 사물하면 모두에게 좋기 때문이다.

그는 말은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2학기 초에 학술정보관에서 영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영화서비스란 그동안 한 가지 자료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개선하여,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또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 많이 건의해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학술정보관은 강의실만큼이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정보관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더욱 이곳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싶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한성인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스스로의 행동에 의식을 가지도록 하자.



엄정훈 팀원 (학술정보팀)

공유학 기자 gong0930@hansung.ac.kr

독자투고-앨범리뷰

Two Door Cinema Club - 청춘의 기억할만한 지나침

'Two Door Cinema Club'을 처음 접한 것은 이들의 뮤직비디오 'This is the Life'에서. 거친 세련됨도 없고, 현란한 카메라 기법도 끝내주는 아이디어도 없는 그저 명멸하는 황금빛 조명과 세 명의 소년들만 존재할 뿐. 진폭이 크지 않은 기타와 드럼의 소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이들을 보여준다. 이 세로 문은 언극장의 사운드느 무엇보다 '젊음, 청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충실하다. 분명 가장 아름답지만, 더불어 위험하고 불안한 시기가 주는 감정을, 이제 막 20세가 넘는 세 명의 이일랜트 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음악들은 서툰데 가슴 어린 순간이며, 아직 정제되지 않은 성급함의 순간이기도 하다. 청춘이란 단어를 생각하니 조금은 씁쓸해졌는데, 어느새 나에게 살짝 지나버렸고 생각해보면 한때 나의 것이었던 것은 평화롭지만 나른



김필근 (영어영문 4)

했고, 아름답지만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젊음'에 대한 주제로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오면 라이언 맥킨리의 사진을 음악으로 옮긴다면 바로 이 앨범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는 인터뷰에서 '젊음에는 확실히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어떤 것에도 확신이 없고 쉽게 불안해한다. 나에게

는 그런 점이 무척 로맨틱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것 처럼 말이다. 그의 말처럼 시작이 괜찮은 이 밴드는 20살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청춘의 부끄러운 고백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감히 예측컨대,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지 않은 이 새로운 극장은 비록 시간이 갈릴지언정 제대로 된 영화만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물론 나는 느긋하게 기다려 볼 것이다.

한줄댓글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

이번 한줄댓글 주제는 '나의 여름방학 이야기'입니다. 지난 2달간의 여름 방학에 무슨 일을 하며 보냈는지, 계획은 얼마나 실천했는지 되돌아봅시다.

안은지 (멀티 4)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거노인도사락 배달 봉사하면서 대학 4년 중 가장 뜨거운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소혜정 (지정 1)

내일로 여행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우고 우리 나라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진석 (경제 1)

5박6일 일정으로 전국 횡도여행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신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0호 당첨자는 안은지(멀티 4)학생입니다.

잉글리쉬 라운지 Open Activity 참여하세요!

Open Activity

잉글리쉬라운지에서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다른 주제로 구성된 무료 회화수업 "Open Activit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학비 필요 전혀 없고 4시에 자유롭게 입장 리쉬 라운지로 오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학점 1학점에 관하여는 학기초에 조기 신청 받음)

Table with 2 columns: Day/Topic and Description. Topics include 'Word to Words', 'Popcorn', 'SITCOM', 'Total request live', etc.

Group Speak

잉글리쉬라운지에서는 외국인 교수님과 영어 스타디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 플랜을 토대로 외국인 교수님이 일주일에 1번 2시간 스타디 조원이 되어 영어공부를 도와드립니다. 4명에서 6명까지 인원을 모집하여 학기 초에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E-홈페이지 또는 방문제출)

English Lounge 홈페이지 : http://www.hansung.ac.kr/jsp/cmt/home/HomeIndex.jsp?p_CLUBCODE=elounge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한성->교내홈페이지-홈페이지명 "잉글리쉬" 검색도 가능)



Write Spot

영작문 에세이, 과제,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영어와 관련된 글을 외국인 교수님이 첨삭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잉글리쉬 라운지 게시판을 통해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하세요.

취업기획 인터뷰

정병용(산업경영공학과) 공과대학장 인터뷰

실력은 기본으로, 인간미를 더하라

우리대학 공과대 학생의 취업대비전략을 듣기 위해 정병용(산업경영공학과) 공과대학장의 연구실을 찾았다.

많은 공과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삼성, LG 등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한다. 대기업에 취직하길 원한다면 '영어'를 무시하면 안된다. 정병용 공과대학장은 어학을 기본으로 전문성을 쌓을 것을 중요하게 꼽았다. "1·2학년 때 영어점수를 만들고 3·4학년이 되어 전공을 심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삼성은 토익 650점을 요구하며 LG등의 기업은 700점 이상의 점수를 원한다. 영어 성적이 없으면 지원할 기회조차 없다. 오히려 편입을 한 학생들이 잘되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보장되지 3·4학년 때 학부에서 전

공 실력을 쌓아 좋은 자리를 얻는 케이스다"고 했다.

공과대학은 영어와 전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취업 방향에 맞춰 2학기에 각종 경진대회와 전시회 및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4일 멀티미디어공학과(파워포인트 경진대회), 혁신위원장(인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5일 컴퓨터공학과(자바언어 프로그램 경진대회), 정보통신공학과(C언어 프로그램 경진대회), 6일 산업경영공학과(엑셀 경진대회), 정보시스템공학과(영어 경진대회), 7일 공학전시회, 8일 사상 특강 등이다.

특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내부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보자. 경진대회를 통해 실력향상 및 경력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경진대회는 외부기관과 연계해 1학년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엑셀, 파워포인트, 인사 자소서 및 포트폴리오 등은 4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실속형 프로그램이다.

정병용 공과대학장은 학생들에게 "회사는 예측가능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며 "젊은 시절 좋아하는 분야에 깊게 빠져보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은 인간적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우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다. 실제 많은 선배들이 각종 대기업, 공사 등에서 그런 미덕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인재

를 스카우트하려는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고 귀띔했다. "기본적인 실력위에 인간적인 장점이 더해지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 교수의 조언은 마음 한 구석에 기억해 둘 만하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기자수첩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성적인 노래가 고집다

'신문사'라고 하면 딱딱한 일터를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신문사 스피커에서는 항상 최신가요가 흘러나온다. 기사를 쓸 때도, 회의준비를 할 때도 음원차트 100위 안팎의 노래가 흐른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기자의 귀에 자극적인 노랫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특정한 가사와 멜로디를 반복하는 후크송에 직설적인 표현의 가사들이 덧붙여지고 있다. 가사는 '가요'라고 하면 감성적인 멜로디에 서정적인 가사라는 이미지가 두둥실 떠오른다. 그래서 평소 애용하는 표현과 노래 가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 아쉬운 기분이 든다.



가끔은 이러한 노래에 질릴 때면 '비가 내릴 때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 여겨지는 감성적인 노래를 찾아 들으며 눈을 감고 캄캄한 가운데 '음악'에만 심취해 있기도 한다. 감성적인 멜로디가 퍼져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와 맞물려 지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대중가요는 한 세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히트곡과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에 따라 당시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노래들을 살펴보면 '감성적'인 것보다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가끔 라디오에서 무심코 예전 노래들을 듣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앞서서 것도 당시의 순수했던 마음이 떠오르기 때문일다.

가끔은 이러한 노래에 질릴 때면 '비가 내릴 때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 여겨지는 감성적인 노래를 찾아 들으며 눈을 감고 캄캄한 가운데 '음악'에만 심취해 있기도 한다. 감성적인 멜로디가 퍼져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와 맞물려 지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 가요계엔 '미쳤다'라는 표현이 식상할 정도로 자극적인 표현과 반복적인 멜로디가 순위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증폭적인 노래들을 듣고있던 어느새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따스해지는 노래가 그리워진다.

기자에게 '노래'라는 존재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가끔 10년 전에 유행한 노래를 들을 때면 'god'를 좋아했던 순수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클릭'의 노래를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희망을 보여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조원선(한국어문 06) 졸업생



며 "방송을 세심하게 분석 비판하면서 많이 봐야 한다.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 상당 기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하며 보았으면 좋겠다"며 "한 장면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 그런 식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재구성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선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본인의 가장 큰 장점부터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장점이 강력히 드러나는 소재목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는 "방송 작가에게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애정도, 끈기가 스펙보다 중요하다. 스펙 쌓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무조건적인 스펙 쌓기를 경계했다. 또한 "힘든 이 시기 잘 이겨내길 바란다. 취업이 인생에 전부라 아니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며 즐기길 바란다."며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일이 많이 고되지는 않느냐는 물음에 "딱내라서 특별히 큰 업무를 하진 않는다. 섭외와 자료조사 등을 한다. 섭외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이 보람이 돼 많이 힘들진 않다."고 하였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의 이야기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줍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그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정병경 기자 jyk0372@hansung.ac.kr

"관련직종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뚝은 취업문"

윤영균(경영 00) 졸업생



"저는 태어날 때부터 노란머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danawa.com에서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윤영균(경영00)씨의 자기소개서 첫머리글이다. 그는 차별화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단순한 나열이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했다고 이야기한다. 윤영균 졸업생은 "나의 일생을 재미있게 각 테마를 만들어 신선한 자극을 주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현재 입점 프로모션기획, 영업마케팅과 고객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그는 "면접 보기 3일 전 Danawa회사를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 때 회사 사람에게 회사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무작정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입사하고 보니 재무팀 사람이었다"며 "당시 성실하고 열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입사에 플러스가 된 것 같다"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던 이유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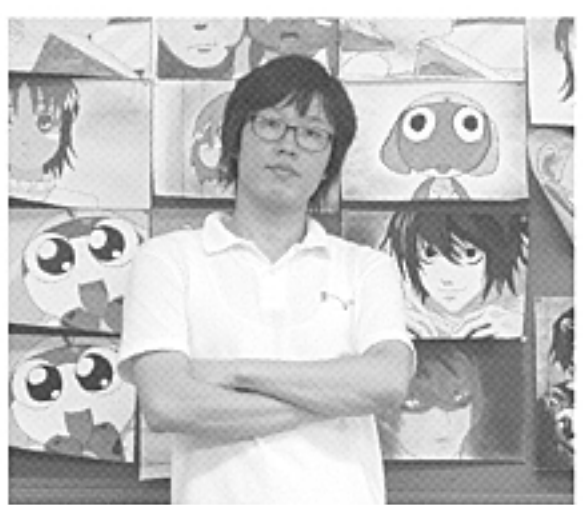
그는 대학시절 "마케팅특성화교육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며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도맡아 하다보니 전체적인 구성도 익혀 실무경험과 리더십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또 "학부를 졸업하고 조교로 있을 때 교내에서 열린 취업행사를 통해 최신 취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이력서를 한 줄 더 채우기 위한 목표가 없는 스펙은 아무소용도 없다"며 "점수뿐만 아니라 호감을 끌어내기 위한 진솔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한다면 성과도 좋고 하는 과정도 즐겁다"며 조언했다. 그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정해진 시간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열정이 중요

고동현(회화 99) 졸업생



많은 학생들이 직업적 안정성이나 보람을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영남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고동현 졸업생을 만나보았다.

그는 교사를 처음부터 희망한 건 아니지만 서양회화를 꿈꾸던 그에게 교직이수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왔다. 부모님은 안정적 직업인 교사를 하길 원했고, 그는 교사 생활과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교사를 꿈꾸게 됐다.

임용시험 최종 합격까지 3년이 걸린 그는 "2-3년이 지나도 노력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상실감이 쎄 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문체가 생긴다.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며 "빠른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정대 기자 dealee@hansung.ac.kr

"간절히 바라면 단단한 삼성의 문도 열린다"

전광하(멀티 02) 졸업생



을 상반기, 채용을 실시한 매출 500대 기업의 신입사원 경쟁률이 평균 57대 1로 나타났다. 그만큼 대기업의 벽은 단단하고 높다. 그 경쟁률을 순수능력으로 뚫고 삼성전자가 인사한 전광하(멀티02) 졸업생을 만나 보았다.

올해 삼성전자에 입사해 휴대폰 플랫폼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 대학시절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2학년 때부터 C언어(프로그래밍)하기 편리하게 만든 언어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당시는 밥먹는 시간, 걸어다니는 시간도 아까워 뛰어다니며 공부만 했다"며 "결국 모든 관심을 전공공부에 쏟은 결과, 관련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삼성'은 그의 손을 들지 않았다.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의 첫 도전에 실패한 그는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공모전 준비를 했다. "학벌과 영어, 해외경험에서 자신이 없었다"며 "당시는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이 아니면 삼성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은 영어, SSAT, 학벌이 아닌 오로지 프로그래밍 실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는 공모전으로 평균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한다. 그는 공모전을 향한 강한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8월 30일(월요일) ~ 9월 3일(금요일)

	월 (8/30)	화 (9/1)	수 (9/2)	목 (9/3)	금 (9/4)
한식(2500원)	삼색비빔밥 유부장국 잡채 김치	고동어무조림 콩나물국 갯잎자무침 김치	제육볶음 복어국 콩나물무침 김치	참치김치찌개 계란말이 무말랭이무침 김치	콩나물밥 팽이버섯장국 감자채볶음 해초무침
양식(3000원)	돈까스모듬정식 육수수프 볶음밥 피클	해물스파게티 스프링롤 샐러드 피클	칠리소스오므라이스 미소장국 새우튀김 단무지	아채키리라이스 맛갈래국 달디튀김 단무지	치킨리조또 아채샐러드 메쉬드포테이토 피클
카페테리아	닭강정 (1000)	총무김밥&오징어무침 (1200)	오꼬노미야키 (1000)	아채도미야 (1000)	고구마달걀밥 (1000)

◆ 위 식단은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국내산 / 쇠고기: 호주산 / 닭장육: 미국산(닭갈비용)을 사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가로
- ① 블로그의 인터넷에 미니홈피의 친구 맺기 기능과 메신저의 신속성을 갖춘 뉴스샬레트워크로서, 팔로우(follow)라는 독특한 기능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SNS.
 - ②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결사적인 각오로 임한다는 말.
 - ③ 시간이나 후기를 통해 동물의 관심을 일으켜서 끌어들이는 일.
 - ④ (법률) 특허, 실용신안, 의창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청하는 사람.
 - ⑤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안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⑥ 한 해의 풍년.
 - ⑦ (음악) 전라도, 충청도의 세속 무당이 쓰는 장단. 주로 4박의 4 박자이다.
 - ⑧ 밀과 향토기 허무명량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세로
- ① [복합어] 빛을 따위가 잘 비치도록 집의 뜰에 파 놓은 좁은 도랑.
 - ② 전라도도 진도읍에 있는 리(리), 북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으로 수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적은 하천이 흘러는 농사 또한 행해지는 곳이다.
 - ③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 ④ 작물이 원고 따위를 고쳐 짓거나 고쳐 만들기 위한 안.
 - ⑤ [반어] '살렐이'의 전복 지역의 말.
 - ⑥ 저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로의 뜻의 사자성어.
 - ⑦ 사람에게 빠져 판단력이 흐리게 된 상태를 말할 때에 'OOO' 씌었다.
 - ⑧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지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느려도 괜찮아!”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친환경 작품

예술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성북예술창작센터

“우리는 어젯밤 정신없이 밤기차를 달려
절망역을 지나 한밤의 방황역에 도착하였다.
기차는 이미 끊기고 밤이 깊어져 간다. 대기
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꼭 술을 마셔야 밤이 다 가는 건
아니겠지, 우리 노래를 마시다 보면 밤이 가
는 소리며, 사람들 인생이 지나가는 소리며
귀 기울이게 되겠지’ - 송드링크스 음악극
중에서

이 노래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아
마추어 밴드가 20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
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소위 88만원 세대
라 불리는 대학생들은 높아지는 취업의 벽
앞에서 스펙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끊임
없는 스트레스로 멎드는 것은 자신의 마음
뿐만 지금, 이에 발맞추어 ‘치유’라는 키워
드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Healing(치유)’이라는 컨셉으로 옛 성북구
보건소 자리에 성북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선

것은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 중 하나이
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시의 곳곳의 폐공장,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낙후된 공간이
재활용되어 문화향유공간으로 만들어진 창
작공간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성북예술창작센터는 예술가와 지역주민
이 함께 참여해 작품을 만들고 스튜디오에
서 전시, 공연함으로써 예술과 사람들의 괴
리감을 좁혀준다는 점은 어느 창작센터와
같다. 하지만 이 곳의 비결은 치유를 중심으
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람들의 마음
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데 있다. 창작센터는
‘몸’을 치료해주는 공간이었던 성북구보건
소와 달리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개념과
맞물려 있다.

이 곳은 미술치료, 음악치료의 체험을 통
해 스트레스로 억눌렸던 마음을 마음껏 발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공연 및 몸짓체험은 몸을 통해 움직임의 반
경을 확인하고 타인과의 몸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예술 앞에 무자정 벽을 느끼던 사람들
에게는 접근이 한결 쉬워지면서 심리치료의 역
할까지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부담없
이 참여해보고 즐김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7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북창작예술센터 창작공간
추진단의 이상임씨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신진작가 위주로 입주할 팀을 구성했다. 프
젝트 기획은 ‘치유’라는 주제 안에서 ‘성
북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심사해 선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어렵고
난해한 예술이 판매하는 값비싼 미술관이 아
니 감성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공간으
로 만들어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이 곳은 ‘주민작실’이란 공간을 만
들어 입주작가의 작품전시 위주로 구성된 타

창작공간과 차별화하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
의 참여가 주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이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고 누구라도 예술창작의 주
체가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 곳을 처음 방문했다는 김혜진 씨는 “따
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치이면서 사회가 각박해져서 아
니한 모든 것이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다”며 “어렵다고 생각한 예술을 손쉽게 접하
면서 음악을 듣고 웃다보니 마음이 한결 편
해지게 되더라”고 전했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Bon voyage~ “그림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낭만이 넘치는 해안로”



요즘 걷기여행이 유행이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생겨난 이후로 곳곳에 둘레길,
마실길, 나들이길 등의 이름을 붙인 산책
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 가면 절
영해안로라는 길이 있다. 이 해안길은 영
도구 남항동의 절영해안로 관리사무소
에서 출발, 종리포구까지 이어진다. 총
길이는 3.4km에 이른다. 시원하게 뻗은 해
안산책로는 빨간 주단을 깔아 놓은 듯 길
게 펼쳐진다.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까지 유명 화가의 풍
경화 배경처럼 멋진 소품 역할을 해준다.
절영해안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떨 때마다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어진다.
특히 모자이크 타일벽화는 눈길을 끌기
에 충분하다. 작품마다 ‘홍등대와 야경’
‘해녀의 잠수’ ‘영도의 미래상’ 등의 제
목이 붙어있다. 40여 편의 테마로 엮은
모자이크 벽화에는 영도의 역사와 고스
란히 담겨져 있다. 모자이크 타일벽화 위
로 보이는 언덕에는 화려한 색깔의 코스
모스, 언제 봐도 정겨운 백일홍, 샛노란
금잔화 같은 꽃들이 만발해 있다. 이에
질세라 꽃가를 스치는 파도 소리마저 합
세하여 테마와 낭만이 가득가득 넘치는
길을 걷게 한다.

단을 으뜸 때 꽃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
고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지압보다 탁택
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파도의 광장에 이르러 지압광장에 박
혀있던 조약돌들이 여기저기 꽃모양으
로 박혀 있다. 파도의 광장은 밀려오는
파도와 검은 자갈들이 모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것 같다. 드넓은 바다와 점
점이며 있는 선박은 여전히 무대 배경이
되어준다. 파도가 정확한 박자에 맞춰 밀
려왔다 밀려가고 나면 검은 자갈들은 사
그락거리며 하얀 포말을 자갈마당에 선
사한다. 잠시 머무르고 있는 길손들도 계단
식 스탠드에 앉아서 그들의 연주에 심취
한다.

이어서 무지개 분수로 향한다. 계단식
분수로 뿜어져 내리는 무지개 분수대의
시원함을 만끽하고 나면 출렁다리가 있
음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여 살짝 흥분도
된다. 절영해안로를 따라 가다보면 금강
산바위, 넓적바위, 노래미바위 등 기암괴
석이 즐비하게 포진해 있다. 기암괴석
사이사이로 경치를 조망하면서 바다낚
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름도 유명한 절영전망대에 이르면
이 일대의 뛰어난 해안선이 그대로 드러
나 멀리 종리 해안과 감지해변 산책로의
기암절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말
그대로 절경인 셈이다. 7·5광장과 8·5
광장 사이는 구름지 산책로다. 언덕길 사
이로 장미터널과 태평양 전망대 등 아늑
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지친 발걸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어 좋다.

절영해안산책로가 끝나는 즈음이면
소나무 숲 사이로 종리해안의 검은 막돌
해변이 드러난다. 해변 근처에는 해녀촌
이 자리잡아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유연태(여행작가) / '대한민국 여행사' 저자

2010 대학패션위크

“미래를 짚어준 청년들의 색다른 패션쇼”



대학생을 위한 패션축제인 ‘2010 대학패
션위크’가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SETEC에서 선보인다. 올해 세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패션센터의 지원으

로 진행하며 서울 및 경기권 16개 학교가 참
여해 창작의상패션쇼, 해외교류패션쇼, 의상
전시회, 공모전패션쇼 등으로 진행된다. 또
부수적으로 패션분야의 취업정보프로그램
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경관을 벌이는 ‘콘테스트’가 아
닌 많은 사람이 즐기는 ‘페스티벌’로 정해진
것도 16개 학교의 졸업전시회를 한 자리에
모아 모두가 즐기는 큰 행사라는 이유에서
다. 우리학교 패션디자인과는 창작의상패션
쇼를 통해 처음 참가하는데 창작의상패션쇼
는 졸업작품전을 대신하는 성격의 무대이다.
졸업작품행사를 총괄하는 박상욱(패디 4)학
장은 “패션쇼가 시작하는 순간이나 쇼 진행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면 사람들이 쇼에
집중해 탄성을 자아내는 순간이 있는데 여기
서 아이디어를 받아 ‘정적의 순간’을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창작의상 69벌, 한복의상 20

벌을 출품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기획한 더
모델트 최은아 이사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패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패션쇼라는 행사
가 드물고 대학생들의 손으로 만드는 큰 행
사라는 점에서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패션’이라는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 사진, 뷰티분야까지 확장해 사진학과
학생들의 사진콘테스트, 취업정보 프로그램,
화장품브랜드 취업박람회도 추가되었다. 그
는 또 “평소 예술 쪽의 취업이 문제가 되다보
니 이색적으로 취업관련 세미나와 패션기업
과의 상담, 인턴십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모전패션쇼’에
우수작품으로 선정되면 상장수상 뿐 아니라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걸음으로서 동대
문 패션센터에서 지원받아 젊은 디자이너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작년에 열린 패션위크 사진

대학생코드가 발맞추어 세계로 뻗어나가
는 예비 패션 디자이너의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쇼와 더불어 패션계의 취업동향, 버
룩시징 등으로 진행되어 눈도 즐겁고 취업정
보도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장이 될 것이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Talk!Talk! cinema <멋진 하루>

“사랑 후에 완벽한 타인으로 만난 옛 연인과의 소통하기”



연애를 해 봤을 당신, 이별의 아픔을 경험
한 당신, 그리고 헤어져서 이별 못 잊고 있는
당신.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못 놓아주고 있는
가.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에 옛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저장 되어 있는가. 이별 노래, 옆에 아
름이 그렇듯 ‘이미 넌 고마운 사람(김연우)’ 혹은
“좋은 사람(토이)”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의 이별과 헤어져서 사
랑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달달한 것이 못 된다.
꾸어 준 돈 때문에 옛 연인을 못 잊고 있는
‘멋진 하루’ 속 이 여자, 회수(전도연)처럼 말
이다.

“멋진 하루”는 ‘여자, 정혜’, ‘리브르코’로
여성의 심리와 감수성을 밀도 있게 포착 해
온 이윤기 감독의 작품이다. 감독은 전작 <아
주 특별한 손님>에 이어 다시 한 번 일본 작가
다이라 이즈코의 단편소설에서 이야기를 길
어 올렸다. 단편을 차용한 만큼 줄거리는 복
잡하지 않다. 빌려 준 돈 350만원을 받기 위
해 오래 전 연인이었던 병운(하정우)을 찾아간
회수와 그런 회수의 빛을 갖기 위해 돈을 움
통하려 다니는 병운의 하루 동안의 불편한 동
행이다. 겉으로 보면 ‘비포 섀리츠’ 류의 로

드무비나, 뒤늦게 사랑을 깨닫는 ‘연애시대’
와 같은 말랑말랑한 멜로들을 떠올리기 십상
이다. 하지만 영화는 전형적인 장르의 관습을
살짝 비틀어 ‘사랑’이 아닌 ‘사람’에 방점을
찍는다. 차지도 넘치지도 않는 주인공들의 일
탈과 해프닝 속에서 영화는 사랑 너머의 문제
들, 예컨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그것이
어떻게 어긋나고 봉합되는가를 천천히 풀어
낸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감정적으로 틀어
진 두 남녀의 재회가 빛 350만원이라는 물질
적인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낭만
이라는 끼어들 틈 없는 이 살벌한 상황은 오
늘 이 땅을 사는 88만원 세대의 아픔을 대변
한다. 신자유주의 처하에서 바깥 말라가는 사
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신경림

시인이 1988년 작 ‘가난한 사랑 노래’가 21세
기에도 유효하다 놀라운 사실에 가슴을 쓸어
내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행히 이 하루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지친 마음에 대한 위안이다. 병운이
회수의 빛을 청산하는 순간 정리되는 것은,
단순히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
가 서로에게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부채감
을 털어낸다. 더불어 서로가 꺼내고 있는 상
처를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제는 완벽한 타인이 된 옛 연인이 나누는
위로와 소통은 예상외로 굉장히 따스하다. 과
잉된 감정을 배제한 전도연의 절제된 연기와
능성스러움으로 중무장한 하정우의 연기 양
상들을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만의 매력이다.

정시우(무비스트 기자)

사진이야기



이번 여름에 네팔로 해외봉사를 갔다 사진입니다.
아직도 그 곳에서 생활은 꿈만 같습니다.
이제 그 꿈은 가슴에 묻고, 저 곳에서 세계를 향한 내 꿈을 품었으니 이제
꿈을 향해 달려 갈 일만 남았겠지요.
구름을 타고 날아볼까요? 꿈을 가진 청년들이여 비상하라!

이호경 (산공 1)